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최은정¹, 정혜선^{2*}

¹충남대학교 간호대학, ²국립공주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Self-Esteem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un Jeong Choi¹, Hye Sun Jeong^{2*}

¹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 204명으로, 자료 수집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2.97 ± 0.29 점,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3.01 ± 0.31 점, 좋은 죽음 인식은 3.24 ± 0.38 점,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23 ± 0.41 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좋은 죽음 인식 및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좋은 죽음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좋은 죽음 인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을 위해 좋은 죽음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심도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and self-esteem o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4 nursing students attending univers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4 to October 31, 2017 and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2.0 program.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scored 2.97 ± 0.29 out of 4, 3.01 ± 0.31 for biomedical ethics, 3.24 ± 0.38 for good death recognition and 3.23 ± 0.41 for self-esteem.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good death recognition, a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self-esteem.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good death perception affected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other words, elevated perception of good death was associated with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is researcher proposes an in-depth study to explore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Keywords : Life-sustaining treatment,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Self-esteem, Nursing student

이 논문은 제 1저자 최은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Hye Sun Jeong(Kongju Univ.)

Tel: +82-10-4726-6770 email: hsjeong@kongju.ac.kr

Received February 21, 2018

Revised March 23, 2018

Accepted May 4, 2018

Published May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학발전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까지 고려하게 되었다[1],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문제를 대두시켰다. 연명치료 중단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과도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2].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유지 장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을 하는 것은 고통스럽게 생명만 연장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제기되고[3], 환자의 삶의 질이 더 낮으며 임종 후 간병 가족에게 우울증이 발생하는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 아울러 말기 암 환자에서 임종이 가까운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어[5], 연명치료의 지속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많은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들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요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6-7], 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법제화의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마침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연명의료결정법)이 2017년 8월 4일부터 일부 시행되게 되었고, 2018년 2월 4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환자의 생애말기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자신의 생애말기 치료선호도와 의사결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생애말기 치료 선호도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와 가치관이다[8]. 이는 환자의 생애말기 치료 결정시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9]. 특히 임상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10],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정립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옹호자이자 상담자,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6]. 따라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경우에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올바른 태도 정립을 위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연구는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연구[11],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지식[12]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연구의 초기 단계에 있는 실정이고, 단일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한 것이 다수이기에,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바탕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제공자는 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된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된다[13]. 예를 들어 연명치료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과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환자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사이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고[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로서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 특히 생명의료 측면에서의 윤리적 의식을 필요로 한다.

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중환자실이나 병실에서 여러 의료 장치에 둘러싸인 채 가족과 격리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흔하게 되었다[14]. 또한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스러운 삶을 무의미하게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10],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연명을 위한 치료를 통해 삶을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인 만큼, 그들이 갖고 있는 좋은 죽음 대한 인식과 무관할 수 없으리라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써 [15], 인간의 사회적 적응, 행동양식, 목표달성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16].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17], 이는 인간이 자신의 마지막 삶의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판단과도 연결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현 시점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시작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이다.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를 정립하고 있지 않다면 훗날 임상현장에서 관련 상황과 마주하였을 때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할 수도 있으며, 이는 결국 대상자 간호의 질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 때부터

올바른 교육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 인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인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인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2.1.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인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1.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시에 위치한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0, 예측변수 14개로 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 수가 166명으로 파악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해

222명에게 설문을 하였고 총 206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2부를 제외하고 204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2.1.3 자료수집

G시의 일개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대학에 연구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2017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전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후 연구책임자가 직접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1.4 연구도구

1) 생명의료윤리 인식

생명의료윤리 인식은 Lee[18]가 개발한 윤리적인 가치관 측정도구를 Kwon[19]이 수정·보완한 생명의료윤리 인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본 도구는 태아의 생명권 5문항, 인공임신중절 6문항, 인공수정 7문항, 태아진단 5문항, 신생아의 생명권 5문항, 안락사 5문항, 장기이식 4문항, 뇌사 5문항, 인간생명공학 7문항 등 총 9개의 하위영역, 4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명의료윤리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won[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2) 좋은 죽음 인식

좋은 죽음 인식은 Schwartz 등[20]이 개발한 The Concept of Good Death Measure를 Jeong[21]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본 도구는 친밀감 9문항, 통제감 3문항, 임상증상 5문항 등 총 3개의 하위영역,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부터 4점 '매우 중요하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eong[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5]가 개발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Jon[22]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본 도구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은 1점 '거의 그렇지 않다'부터 '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8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4)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Park[23]이 개발한 도구를 Byun 등 [10]이 수정·보완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본 도구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긍정적 태도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Byun 등 [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2.1.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 3)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2.2 연구결과

2.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88.2%(180명)이었고, 학년별 구성은 4학년이 38.2%(78명)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학생이 63.7%(130명)이었다. 윤리적가치관은 '어느 정도 확고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74.5%(152명)로 가장 많았고, 생명의료윤리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이 92.2%(188명)로 상당수가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을 경험한 학생이 78.4%(160명)이었고, 좋은 죽음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64.7%(132명)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이해정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1.3%(125명)로 가장 많았고, 연명치료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57.4%(117명)로 나타났다 (Table 1).

2.2.2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평균점수는 3.01 ± 0.31 점이었고,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신생아의 생명권이 3.53 ± 0.48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장기이식 3.35 ± 0.49 점, 태아진단 3.32 ± 0.52 점, 인간생명공학 3.01 ± 0.62 점, 태아의 생명권 2.94 ± 0.61 점, 안락사 2.88 ± 0.75 , 인공수정 2.82 ± 0.49 점, 뇌사 2.48 ± 0.60 점, 인공임신중절 2.19 ± 0.59 점 순이었다. 좋은 죽음 인식의 평균점수는 3.24 ± 0.38 점이었고,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4점 만점에 친밀감이 3.41 ± 0.38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임상증상 3.15 ± 0.45 점, 통제감 3.08 ± 0.62 점 순이었다.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23 ± 0.41 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2.97 ± 0.29 점이었다 (Table 2).

2.2.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성별, 학년, 종교여부, 윤리적 가치관, 생명의료윤리 관련 교육여부,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 경험, 좋은 죽음 관련 교육여부, 죽음에 대한 이해도, 연명치료 관련 교육여부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an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F	p
Gender	Male	24	11.8	2.94±0.29	-0.32	.749
	Female	180	88.2	2.96±0.28		
Grade	First	28	13.7	2.92±0.28	0.84	.474
	Second	32	15.7	3.03±0.29		
	third	66	32.4	2.97±0.28		
	fourth	78	38.2	2.95±0.28		
Religion	Yes	73	35.8	2.95±0.25	-0.58	.564
	No	130	63.7	2.97±0.30		
Ethical value	Very firm	14	6.9	3.12±0.31	1.77	.154
	somewhat firm	152	74.5	2.95±0.28		
	sometimes confused	25	12.3	2.97±0.28		
	depends on the situation	13	6.4	2.89±0.29		
Received biomedical ethics education	Yes	188	92.2	2.96±0.28	-0.04	.970
	No	16	7.8	2.96±0.35		
Experienced the death of close relatives, acquaintances	Yes	160	78.4	2.96±0.28	-0.06	.952
	No	44	21.6	2.96±0.31		
Received good death education	Yes	72	35.3	3.00±0.28	1.46	.146
	No	132	64.7	2.94±0.28		
Understanding of death	highly understand	39	19.1	2.97±0.28	0.55	.577
	somewhat understand	125	61.3	2.98±0.26		
	a little understand	40	19.6	2.92±0.34		
Receive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education	Yes	87	42.6	2.96±0.25	0.06	.955
	No	117	57.4	2.96±0.31		

Table 2. Degree of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Self-Esteem an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f the Subjects

(N=204)

Variables		M±S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Total	3.01±0.31
	Fetal right of life	2.94±0.61
	Artificial abortion	2.19±0.59
	Artificial insemination	2.82±0.49
	Fetal diagnosis	3.32±0.52
	Newborn babies' right to life	3.53±0.48
	Euthanasia	2.88±0.75
	Internal organ transplant	3.35±0.49
	Brain death	2.48±0.60
Good death recognition	Human biotechnology	3.01±0.62
	Total	3.24±0.38
	Clinical signs	3.15±0.45
	Intimacy	3.41±0.38
Self-esteem	Control	3.08±0.62
		3.23±0.41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2.97±0.29

2.2.4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좋은 죽음 인식($r=.40, p<.001$), 자아존중감($r=.18, p=.009$)이 있었다(Table 3).

2.2.5 대상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809-.906으로 .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104-1.236으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고, Durbin-Watson 지수는 2.051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회

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좋은 죽음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고($\beta=.376, p<.001$), 이 변수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를 15.1% 설명하였다 ($F=13.00, p<.001$). 즉, 좋은 죽음 인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Table 3. Correlation amo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Good Death Recognition, Self-Esteem and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204)

Variables	r(p)			
	1	2	3	4
1.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1			
2. Good death recognition	.16 (.024)	1		
3. Self-esteem	.30 (<.001)	.34 (<.001)	1	
4.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00 (.981)	.40 (<.001)	.18 (.009)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the Attitude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N=204)

	B	SE	β	t	p
(Constant)	2.125	.230		9.25	$p<.001$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077	.063	-.083	-1.22	.224
Good death recognition	.277	.051	.376	5.45	$p<.001$
Self-esteem	.055	.051	.079	1.09	.277

Adj. $R^2=.151, F=13.00, p<.001$

2.3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은 ‘어느 정도 확고하다’가 74.5%로,

대상자 스스로가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고, Kim 등[11]의 연구에서 56.5%의 대상자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결과가 나온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교육과[24], 간호윤리교육의[25] 결과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의식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생명의료윤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92.2%를 차지하고 있어 Kim 등[11]의 연구의 56.3%보다 많아 교육경험이 윤리적 가치관을 확고히 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78.4%가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 이는 Kim 등[11]의 연구에서 81.1%, Kim 등[26]의 연구에서 76.1%가 경험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좋은 죽음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은 35.3%로 다소 적었고, 노인 병원 간호사의 좋은 죽음에 대한 교육경험이 63.0%였던 An과, Lee[27]의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57.4%가 연명치료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경험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의료윤리 의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01 ± 0.31 점으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Lim과 Park[28]에서 3.03 ± 0.21 점, Kwon[19]의 2.97 ± 0.20 점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중 가장 높게 측정된 요인이 신생아의 생명권으로 4점 만점에 평균 3.52 ± 0.47 점이었으며, 이는 Kwon[20]의 3.24 ± 3.28 점인 결과, Jeong[29]의 3.42 ± 0.48 점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생아의 생명권이 가장 높게 인식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환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생명에 대한 중절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의 연장보다 존엄사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30]. 즉, 가장 낮은 연령인 신생아에 대한 생명권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중 가장 낮게 측정된 요인은 인공임신 중절로 2.19 ± 0.59 점이었고, Kwon[19]의 2.66 ± 2.66 점, Kim[3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Jeong[29]의 연구에서 장기이식이 2.70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Choi[32]의 연구에서 뇌사가 2.58 ± 0.28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인공임신 중절의 인식 정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인공임신 중절이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법

상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생애, 권리, 경제적 상황 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현상이 반영되었고[33], 연구의 대상자가 여학생이 다수라는 점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측면을 중요시[34]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공임신 중절, 장기이식, 뇌사 등이 과거나 현재에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이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문제가 당사자 아닌 타인에 의해 다루어 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법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좋은 죽음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24 ± 0.38 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별 점수는 친밀감 3.41 ± 0.38 점, 임상증상 3.15 ± 0.45 점, 통제감 3.08 ± 0.62 점 순이었다. 이는 An과 Lee[28]의 연구에서 평균 3.13 ± 0.33 점, 하부요인의 친밀감 3.28 ± 0.34 점, 임상증상 3.06 ± 0.43 점, 통제감 2.77 ± 0.68 점 순인 결과와 유사하였다. 특히 친밀감은 Jeong[21]의 연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높게 인식된 요인이었는데, 이는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신체적 간호 뿐 아니라 영적, 정신적 간호까지도 할 수 있는 전인적 간호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죽음을 앞둔 대상자들을 간호할 때 그들의 가까이에서 공감하면서 편안히 죽음을 맞도록 돕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 결과 친밀감 영역에 대한 인식이 높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22 ± 0.41 점으로 측정되어 보통이상을 나타내었고, Lee 등[35]의 연구에서 평균 $3.72 \pm .60$ 점과 유사하였다.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여기도록하며 대상자 간호에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인 것으로 나타나[36] 지속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는 4점 만점에 2.97 ± 0.29 점으로 측정되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Kim 등[11]의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62 ± 0.39 점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일반적 특성 중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차이를 보인 Kim 등[1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윤리적 가치관이 '어느 정도 확고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74.5%라는 점에서 선행연구에 비해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정도가 비교적 동질 하였고, 따라서 윤리적 가치관의 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는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Kim과 Kim[3]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과 가족의 죽음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연구의 대상자가 간호사였다는 점에서 간호대학생보다 경험적인 면이 상이하여 결과의 차이를 보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규명하는 반복적 연구를 통해 보다 일관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좋은 죽음 인식, 자아존중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좋은 죽음 인식이($r=.40, p<.001$)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좋은 죽음 인식이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경우 좋은 죽음 인식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Kim과 Kim[3]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가 차이를 보인 이유는 Kim과 Kim[3]의 연구 대상자의 좋은 죽음 인식의 정도가 본 연구결과보다 더 낮았던 것과, 선행연구 진행 당시에는 연명치료의 중단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의 의미를 객관적, 윤리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r=.18, p=.009$)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없지만,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죽음태도가 긍정적이라는 결과[37]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좋은 죽음 인식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beta=.376, p<.001$) 좋은 죽음 인식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연구는 없었지만,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인간에게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고 연명치

료에 대한 본인의 사전의사 결정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38]와 비슷한 맥락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연명치료에 대한 중단이나 연명치료의 범위 등에 대해 본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이 좋은 죽음을 맞을 권리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정립하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와 상관관계는 있었지만 영향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한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17],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매개 또는 조절 역할을 규명하는 반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생명의료윤리 의식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요인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생명에 대한 가치가 환자의 가치와 함께 사회적가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39], 생명의료 윤리 의식을 구성하는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안락사, 장기이식, 뇌사 등의 하부요인은 아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개인의 특성, 생각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각 하부요인들이 나타내는 생명의료윤리 의식의 함으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앞으로 간호사는 환자와 환자의 보호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간호대학생 시기는 간호사로서의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이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법제화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호사는 연명치료의 시행과 중단 사이에서 윤리적 갈등을 경험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인구고령화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3], 이 과정에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 시기는 전공의 학문적 지식을 탐구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때이기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다면 미래에 간호사로서 역할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밝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반복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S. M. Kim, K. S. Kim, I. S. Lee, S. Y. Kim, "Perception Towards Advance Directives, Hospice-Palliative Care,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the Middle Aged Adults", *Korean J Soc Welf Res*, vol. 37, pp. 21-44, 2013.
- [2] M. L. Olsen, K. M. Swetz, P. S. Mueller, "Ethical Decision Making with End-of-Life Care: Palliative Sedation and Withholding 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s", Paper presented at the Mayo Clinic Proceedings, 2010.
DOI: <https://doi.org/10.4065/mcp.2010.0201>
- [3] S. N. Kim, H. J. Kim, "Recognition of Good Death, Attitude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ttitude Towards Euthanasia in Nurses",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9, no. 2, pp. 136-144, 2016.
DOI: <https://doi.org/10.14475/kjhpc.2016.19.2.136>
- [4] A. A. Wright, B. Zhang, A. Ray, J. W. Mack, E. Trice, T. Balboni, S. L. Mitchell, V. A. Jackson, S. D. Block, P. K. Maciejewski. "Associations between End-of-Life Discussions, Patient Mental Health, Medical Care near Death, and Caregiver Bereavement Adjustment", *Jama*, vol. 300, no. 14, pp. 1665-1673, 2008.
DOI: <https://doi.org/10.1001/jama.300.14.1665>
- [5] H. M. Jung, J. h. Kim, D. S. Heo, S. K. Baek, "Health Economics of a Palliative Care Unit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Supportive Care in Cancer*, vol. 20, no. 1, pp. 29-37, 2012.
DOI: <https://doi.org/10.1007/s00520-010-1047-y>
- [6] C. Y. Chang, Y. S. Kim, "Attitude toward Forgo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Cancer Patient Families" *Ment Health Soc Work*, vol. 38, no. -, pp. 5-30, 2011.
- [7] H. K. Lee, H. S. Kang, "Attitudes and Awareness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mong Nurses, Physicians, and Families of Intensive Care Unit Pati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6, no. 3, pp. 85-98, 2010.
- [8] U. K. Braun, M. E. Ford, R. J. Beyth, Laurence. B.

- McCullough, "The Physician's Professional Role in End-of-Life Decision-Making: Voices of Racially and Ethnically Diverse Physicians",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vol. 80, no. 1, pp. 3-9, 2010.
DOI: <https://doi.org/10.1016/j.pec.2009.10.018>
- [9] K. H. Jo, G. M. Kim, "Understanding the Attitude of Korean Adults toward Dignified Dying: Q-Methodological Approach", *Korean J Med Ethics*, vol. 14, pp. 29-43, 2011.
- [10] E. K. Byun, H. R. Choi, A. L. Choi, N. M. Kim, K. H. Hong, H. S. Kim, "An Investigative Research on the Attitudes of Intensive Care Unit Nurses and Families on Terminating Life Support",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9, no. 1, pp. 112-124, 2003.
- [11] G. M. Kim, K. S. Sung, E. J. Kim,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ward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23, no. 3, pp. 292-299, 2017.
DOI: <https://doi.org/10.4094/chnr.2017.23.3.292>
- [12] S. B. Kim, "Knowledge to interrup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advance directives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Chonbu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p. 17-29, 2011.
- [13] K. J. Lee, S. Y. Yoo, "Relationships between Nurses' Ethical Dilemma, Coping Typ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17, no. 1, pp. 1-15, 2011.
- [14] S. Y. Kim, S. S. Hur, B. H. Kim, "Study of Subjective View on the Meaning of Well-Dying Held by Medical Practitioners and Nursing Students: Based on Q-Methodology",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7, no. 1, pp. 10-17, 2014.
DOI: <https://doi.org/10.14475/kjhpc.2014.17.1.10>
- [15]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vol. 11: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65.
DOI: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 [16] A. K. Han, "A Study on Profess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Annual Bulletin of Seoul Health Junior College*, vol. 14, pp. 149-158, 1994.
- [17] H. S. Kim, S. R. Shi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mong Community Dwelling Elderly and Their Attitude Towards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9, no. 4, pp. 373-381, 2017.
DOI: <https://doi.org/10.7475/kjan.2017.29.4.373>
- [18] Y. 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vol. 20, no. 2, pp. 249-270, 1990.
DOI: <https://doi.org/10.4040/jnas.1990.20.2.249>
- [19] S. J. Kwon, "A study on consciousness of bio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 [Master's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03.
- [20] C. E. Schwartz, K. Mazor, J. Rogers, Y. Ma, G. Reed, "Validation of a New Measure of Concept of a Good Death",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vol. 6, no. 4, pp. 575-584, 2003.
DOI: <https://doi.org/10.1089/109662103768253687>
- [21] H. S. Jeong, "Recognition Towards Good Death among Physicians and Nurses in an Area [Master's Thesis]", *Busan: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10.
- [22] B. J. Jon,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vol. 11, no. 1, pp. 107-130, 1974.
- [23] G. S. Park, "The Study of Consciousness of Euthanasia among Health Professionals: Q-Methodological Approach [Master's Thesis]" *Seoul: Dankook University*, 2000.
- [24] S. Y. Kim, "Effects of Biomedical Ethics Education Using Movi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7, pp. 281-290,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7.281>
- [25] M. S. Yoo, K. C. Shon,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ment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Bioethics Assoc*, vol. 12, no. 2, pp. 61-76, 2012.
- [26] Y. H. Kim, Y. S. Yoo, O. H. Cho,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ward Death of Terminal Patient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6, no. 1, pp. 1-9, 2013.
DOI: <https://doi.org/10.14475/kjhpc.2013.16.1.001>
- [27] M. S. An, K. J. Lee, "Awareness of Good Death and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among Geriatric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 17, no. 3, pp. 122-133, 2014.
- [28] M. h. Lim, C. S. Park, "Factors Affecting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7, pp. 4423-4431,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7.4423>
- [29] G. S. Jeong, "The Effect of Gender, Ethical Values and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n Nursing Students in One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1, pp. 5672-5681,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72>
- [30] C. S. Park, "An Attitude of the Withholding Treatment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2004.
- [31] I. S. Kim, "Effects of Bioethics Education on the Consciousness of Bioethics of Freshman Nursing and Health Students", *J of Korean Bioeth*, vol. 14, no. 1, pp. 1-13, 2013.
- [32] W. Y. Choi,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Regarding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of Nursing Students [Dissertation]"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 2012.
- [33] J. Y. Ha, D. H. Kim, S. K. Hwang, "The Perception of Biomedical Ethics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5, no. 2, pp. 216-224, 200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09.15.2.216>
- [34] E. H. Kim, E. J. Lee, "A Comparison of First-Yea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Ethical Values and Understanding of Biomedical Ethic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15, no. 1, pp. 78-95, 2012.

- [35] S. Y. Lee, J. S. Lee, Y. Y. Kim,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on Ego-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5, pp. 401-409, 2017.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7.15.5.401>
- [36] K. H. Kim, K. D. Kim, H. S. Byun, B. Y. Chung, "Spiritual Well-Being, Self Esteem, and Attitude to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vol. 10, no. 1, pp. 1-9, 2010.
- [37] J. G. Kim, S. M. Oh, E. Y. Cheon, J. H. Yoo, "Factors Influencing the Attitude toward Death in College Nursing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676-683,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676>
- [38] E. J. Yeun, Y. P. Hong, J. H. An, "Attitudes toward Life Sustaining Treatment(Lst) of Health Professionals and General Public : A Co-Oriental Look",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vol. 11, no. 2, 1-14, 2016.
DOI: <https://doi.org/10.21097/ksw.2016.11.11.4.1>
- [39] D. S. Heo, "Patient Autonomy and Advance Directiv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l. 52, no. 9, pp. 865-870, 2009.
DOI: <https://doi.org/10.5124/jkma.2009.52.9.865>
-

최 은 정(Eun Jeong Choi)

[정회원]



- 2018년 2월 : 국립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충남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노인간호, 간호정보

정 혜 선(Hye-Sun Jeong)

[정회원]



- 199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건강증진, 빅데이터